

금주 미사 독서: 이승환 안드레아, 윤지희 데레사	<u>+ 지난주 우리의 정성</u>
다음 주 미사 독서: 강후길 프란치스코, 이영주 크리스티나	봉헌금: \$ 182
금주 미사 복사: 김보미 로사	교우금: \$ 380
다음 주 미사 복사: 윤지희 데레사	생미사 & 매일 미사책: \$210
금주 미사 해설: 윤보연 소화데레사	-----
다음 주 미사 해설: 최고은 소피아	합계 : \$ 772
반 주: 조은영 베다, 정연희 가브리엘라, 강동현	봉헌봉사: 권민호 바오로
회 계: 황성필 요한, 친교실 정리: 2 구역	다음주 봉헌봉사: 우명희 카타리나

주 일 미 사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고 백 성 사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부터 미사 전까지.
목 주 기 도	매주 미사 20분전 (오후 4시 40분 부터 4시 55분까지)
성 가 대 연 습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지하 성가 연습실]
친교/간식 모임	매주 미사 후 [지하 친교실]

남성교우 기도모임	격주 금요일 (6 월 28 일 저녁 8:00, 사제관)
성모회 금요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오후 1 시 (장소: club.catholic.or.kr/thecccm 게시판 참고)
교리 모임	미정
성경 통독 모임	격주 금요일 (7 월 5 일 저녁 7:00, 장소: 페이스북 클럽 참고)
골프 모임	매주 일요일 아침 (Tumbledown Trails, 시간: 페이스북 클럽 참고)
테니스 모임	매주 일요일 (Tennis court at Rennebohm park, 시간: 페이스북클럽 참고)

1 구역	매월 둘째주 토요일
2 구역	매월 첫째주 토요일
3 구역	매월 셋째주 토요일
대학원 구역	미정
학부생 구역	미정

요한 묵시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라오디케이아 신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으련만!”(3,15)

이 말씀의 배경에는 라오디케이아 지역의 상황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이 도시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부유해서 전망의 지역이기는 했지만, 한 가지 흠이 있었습니다. 그 도시 안에서 자체적으로 물이 공급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약 10 킬로미터 떨어진 데미즐리라는 곳에서 관을 통하여 물을 공급받습니다. 그러니 그 물은 미지근할 뿐 아니라 먹으면 구토를 일으킬 정도였고, 건강에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 반면 인근 도시였던 콜로새에는 아주 차고 신선한 물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인근 도시인 파묵칼레에는 온천수가 있어서 많은 이가 그 물로 피로를 풀고 건강을 유지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케이아 교회의 신자들에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고 하신 것은,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자신들의 풍요와 안락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당시 소아시아에서 부유하게 산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교도 의식에 참여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교도 의식과 경제 구조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라오디케이아 신자들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였던 것이고,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의 이러한 영적인 상태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오늘 복음에서 주님의 길을 따르는 자세를 우리에게 알려 주십니다. 그 자세는 반대편에 대한 적개심, 보금자리에 대한 근심과 걱정, 소중한 사람에게 대한 애착 등에서 단호하게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러한 것에서 벗어나지 못할 뿐 아니라 불의까지도 적당히 타협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의 성가] 시작: 19 봉헌: 210 성체: 160 파견: 205



지독한 불안정 속의 안정

우리 삶이란 안정된 것이라고 없습니다. 끊임없는 변화 속에 불안정의 연속입니다. 몸도 마음도, 우리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사건이나 상황도 어느 하나 안정되고 평화롭지 않습니다. 심지어 기도마저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해 내적 평화나 위안을 맛보며 깨달음만을 얻는 것이 아니라, 검은 먹구름 속에 갇혀 있기 일쑤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고 말씀하신 것도 이런 맥락 속에서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여정은 고속의 탄탄대로를 달리는 것이 아니라, 구불구불한 길을, 그것도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것입니다. 때론 그 길마저 끊어져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삶이 그저 불안정하고 힘들고 괴롭기만 하다면 어떻게 살아가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생을 마감하는 게 더 복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깊이 주목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머리 하나 제대로 낼 곳 없는 그런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고 성장시켜 나가는 따뜻한 기운과 힘이 있음을 알고,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서 작용하고 있는 그 빛과 기운은 한시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고요하지만 힘있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눈이 가려져 이 사실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기 몸뚱어리와 자기 생각과 느낌만을 자기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물질 욕심을 비롯한 자기 욕심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빛과 기운을 가려 버리고 알아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만큼이나마 생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안에 있는 그 빛과 기운의 덕분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가리고 덮어 버렸음에도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어야 할 곳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비추고 살려내는 그 빛과 기운으로부터 잠시도 눈을 떼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공부요 수행입니다. 그러기 위해 간단없이 우리는 깨어 있지 않으면 안됩니다. 의무감 때문이 아닙니다. 나를 감싸고 돌봐 주고 키워 주고 있는 그 빛과 기운에 대한 깊은 사랑과 신비감 때문입니다. 이 빛과 기운이 바로 성령의 현존이요 활동입니다. 이렇게 오직 성령의 현존과 활동에만 온 마음과 힘을 쏟을 때, 비로소 불안정하기만 한 현실 속에서 휘청거리면서도 쓰러지지 않고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삶에 있어서 무엇이 더 소중하고 귀한지, 무엇이 덜 그런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생기게 되며, 지혜가 가르쳐 주는 대로 행할 힘까지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에게 맡길 수 있게 되고, 가족들과의 작별 인사마저 뒤로 한 채 하느님 나라를 알리는 일에 온전히 투신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성직자나 수도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알고 믿고 있다고 고백하는 이라면 모두 이런 태도로 불림을 받았습시다. 오직 성령께만 마음을 모은, 하느님을 향한 온전한 투신은 우리 모두의 의무요 권리입니다.

유시찬 보나벤투라 신부
예수회

† 공지사항

1. 견진 성사 안내
일시: 2013년 7월 20일 (토) 5시
장소: St.Paul
집전: 인천교구 교구장 최기산 보니파시오 주교
2. 견진 교육 일정 (총 2회)
일시: 1차 - 7월 6일 (토요일) 저녁 7시
2차 - 7월 13일 (토요일) 저녁 7시
장소: 사제관 (409 N. Eau Claire #102, Madison)
다음 주 토요일부터 견진 교육이 시작되오니 견진성사 신청자 분들의 참석 바랍니다.
3. 예비자 입교식
7월 27일 토요일 미사 중
예비자 교리 첫모임
7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사제관



우리 공동체 소식

<성경 통독 모임 안내>

교우 여러분, 함께 모여 주님 말씀을 들어 보아요 금요일에 격주로 모여 성경을 통독합니다. 저녁 7시부터 2시간 동안 통독 합니다. 함께 주님 말씀을 들으며 은총의 시간을 나눠 보아요. 남녀 노소 누구나 환영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교우님은 연락주셔요(전화 : 770-0291)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독서단 모집>

독서 봉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은숙 글라라 자매님 (esjeon95@mac.com) 혹은 김보미 로사 자매님 (bomi921@gmail.com)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교적 정리>

교적 정리가 진행중입니다. 성당 홈페이지 게시판의 양식을 다운받으셔서 작성하신 후 메일로 (jkhong2350@yahoo.com) 보내주셔도 됩니다.

<성가대 모집>

성가대원과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교우분들께서는 지휘자 한영주리드비나 (lidwinahan@gmail.com) 에게 문의하시거나, 미사전후에 지하 Music Room 에 직접 들려주셔도 됩니다. 교우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남성교우 기도모임>

공동체의 남성교우 기도모임에 참여하세요. 격주로 모여 다함께 묵주기도 바치고 묵상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신부님 또는 홍진국 클레멘스 (jkhong2350@yahoo.com) 형제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 세바스티아노

페루지노의 작품 <성 세바스티아노>는 화살을 맞고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순교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특별한 점은 화살을 맞은 성 바스티아노에게서 어떠한 고통이나 일그러진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늘을 향해 미소를 짓는, 환희에 가득 찬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주님께 신앙을 고백하며 죽음을 넘어 하느님 나라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영현 시론 신부 | 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